

고대 로마의 장애인 검토

이진실*

이 논문은 고대 로마의 장애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조명하려는 시도이다. 흔히 고대 장애인을 핍박과 차별의 대상으로만 인식해온 편견에 답하고 기존에 알던 지식과 차별화된 새로운 시선을 전달하고자 한다. 선천적 장애의 경우 가족에 의해 버림받는 유아 유아가 많았다. 이러한 유아유기는 대중의 고대 이미지에 깊숙이 자리하는 만큼 출산과 장애아동의 탄생을 주위 깊게 살펴본다. 고대 로마사회가 가지고 있던 선천적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을 연구해 볼 것이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고대 장애인의 복원을 위한 실마리를 마련할 것이다. 여러 자료들을 통해 고대 로마의 장애인 생존자들의 존재와 삶을 살펴볼 수 있었다. 고고학적 증거와 사료들은 로마에 고대 장애인의 존재를 분명히 알려준다. 그들 역시 로마 사회 내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려고 노력했다. 당시 로마인의 육체에 대한 정의 및 질병과 장애를 향한 시선을 연구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장애사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 항상 존재해 왔으며 우리는 단순히 수동적인 보살핌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능동적이고 중요한 사회 구성원이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논문을 통해 미진한 연구 분야인 고대 장애사를 살펴 새로운 장애 이해를 돕기를 바란다.

주제어 : 고대 로마 장애 장애인

*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서양사전공 석사과정

I. 서론

최근 전 분야 학계에서 장애를 향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사회가 다양한 소수자들에게 귀를 기울이며 생기는 변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순적이게도 의학 기술의 발달이 장애인의 증가를 가져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장애에 관한 인식이 다양해지고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장애 역사의 필요성과 재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장애를 다룬 역사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장애는 인류 역사의 모든 단계, 모든 사회, 모든 인구 통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역사학계에서 장애인의 삶은 모든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간과되어왔다. 역사학이 늘 소수자들에 관심을 기울여왔음을 감안하면 아쉬운 대목이다. 역사학은 시대별 소수집단이나 차별계층인 예술가, 노동자, 여성, 성소수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들의 흔적을 상기시켜 왔음에도 장애와 장애인을 향한 재고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고대의 장애와 장애인에 관련된 재고는 최근에야 조금씩 연구가 시작된 실정이다. 학문으로서의 장애에 관한 진정한 연구는 1980년대에 시작되었다. 그때까지는 장애인과 기형아 역사는 완전히 방치되어 있거나 몇 가지 단편적인 사료들에 기초한 편견이 대부분이었다. 초기 학자들은 고대의 장애에 대해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했으며, 기형이나 눈에 띄는 장애 징후-내과적 질환이 아닌-를 보이는 아기가 영아 살해 또는 유기의 대상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자연스레 서양 고대 스파르타나 로마제국을 향한 이미지가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환원적 접근이 점차 불명예를 안고 고대의 장애에 대한 이해가 점점 미묘해지게 된 것은 20년이 채 되지 않았다(Draycott, J, 2015). 고대 세계에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를 사회로 받아들이지 않고 출산 후 죽이거나 유기했다고 흔히 가정해왔다. ‘유기’로 알려진 이러한 관행에 대한 증거는 대부분 문자적 사료에서 비롯되기에 항상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 미개척 분야이고 장애인 인식에 대한 편견이 만연한 역사라는 측면에서 고대 장애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장애를 향한 상대측에서의 접근 방식은 늘 변해왔다. 고정되지 않은 장애인의 대우는 동시대에도 학대, 차별, 핍박, 이해 부족, 연민, 돌봄이 공존한다. 장애의 물리적 사실과 장애의 형태에 대한 반응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특성을 분리하는 일은 암묵적이고 명시적으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고대 서양 장애에 관한 다양한 태도를 새로이 인식하는 일은 장애 해석의 또 다른 지표를 열어주고 장애를 향한 시선을 개선하고 반성하는 일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 논문은 고대 장애인들이 여러 어려움에도 존재했다면, 살아남은 이들은 누구였을까. 어떻게 생활하며 살아갔을까. 사회에서 그들의 삶에 한계는 무엇이며 그들을 바라보는 이들의 시선을 어

떠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이 글의 목적은 고대 장애인관을 사료를 통해 살펴보는 데 있다. 다양한 사료를 기반으로 고대 로마인들의 장애인관에 대해 살펴보고 오늘 날의 시각과 앞으로의 방향을 고찰할 것이다. 첫 번째로 장애 탄생의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는 선천적일 수도 있고 후천적일 수도 있다. 두 번째로 영아 살해와 유기, 낮은 의료수준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 존재하는 고대 장애인의 삶을 다양한 사료들과 함께 살펴볼 것이다. 세 번째로 살아남은 장애인들을 향한 인식과 고대 로마 사회의 시선을 고찰해 보려 한다.

논의에 앞서 구별해야 할 문제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선천적인 것과 누군가의 삶에서 특정한 사건- 고대의 경우 사고, 전쟁으로 인한 부상, 질병 및 출생 후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사건의 결과로 생기는 후에 장애를 습득하는 후천적인 것이다. 이 둘은 분명히 다르다. 이 점은 특히 고대 로마 사회에서 더 중요하게 다뤄 질 수 있는데, 당시 로마는 영양실조, 질병, 근친혼인, 신체적 탈수, 사고, 위험한 운동, 전쟁, 출산 시 감염 위험 등의 후천적 장애를 가져올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 요소들은 많은 수의 장애를 발생시켰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로마 제국의 장애를 조사하기 위해 두 가지 유형의 장애를 나눠 살펴볼 것이지만, 장애의 인식에서는 분명히 구분하지는 않았다.

살펴볼 기간은 로마의 공화정 말부터 제정 초반이다. 로마는 기원전 510년 공화정 시대에 들어섰다. 더 이상 왕이 통치하지 않는 로마인들은 상류층, 즉 원로원과 기사계급이 통치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부를 수립했다. 공화정 시대 로마는 계속해서 팽창해 나갔고 기원 전 338년에는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장악했다. 카르타고와의 포에니 전쟁과 내전을 겪으며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집권한 기원전 60년부터 차츰 제국의 모습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기원전 51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켈트족의 갈리아를 정복했고 처음으로 로마의 국경이 지중해 지역을 넘어 확장되었다. 카이사르의 힘이 증가함에 따라 원로원은 여전히 로마의 통치 기관이었지만 그 힘은 약화 되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기원전 44년에 암살되자 그의 후계자인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함께 통치했으나 옥타비아누스는 기원전 31년에 로마는 이집트와 손을 잡은 안토니우스를 격퇴시키고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아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었다.

로마의 제국 시대는 기원전 31년에 로마의 초대 황제가 등장하여 기원후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할 때까지 지속됐다. 이 기간 동안 로마는 수십 년 동안 평화와 번영, 확장을 경험했고 기원후 117년에 이르러 로마 제국은 소아시아, 북아프리카, 유럽 대부분을 포함하는 3개 대륙에 걸쳐 최대영토를 지니게 되었다. 서기 286년 로마제국은 동로마제국과 서로마제국으로 나뉘었고

각각의 황제가 통치했다.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족의 침략을 여러 번 받았고, 기원후 455년에는 반달족에게 약탈당하다 계속 쇠퇴의 과정을 겪으며 기원후 476년 멸망한다.

이 글에서 살펴볼 기간의 끝은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밀라노 칙령이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장애인을 돌보는 방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와 장애인들은 그들처럼 신의 창조물이며 그렇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장애인을 돌보는 병원과 장소를 만들었고, 장애인에 대해 쓰는 자료들은 고대 후반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Laes, C, 2014). 이 글의 초점은 기독교의 공인 이전 시기이다. 이 글에서는 로마 공화정부터 제정시대에 이르기까지 장애와 기형에 대한 광범위한 견해와 논의를 조사할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용어의 문제이다. 고대에 장애에 접근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가 되며, 그 중 주된 이유는 실제로 '장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실 고대에는 '장애인'이라는 공식적인 범주의 사람은 없었다. 다시 말해 오늘 날 사용되는 범주로 장애를 구분하지 않았을 뿐 더러 장애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도 않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오늘 날과 같은 공식적인 개인 또는 집단 정체성은 없었다. 고대 로마에는 기형과 장애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없었으며 현대 명칭에 해당하는 정확한 그리스어나 라틴어도 없었지만, 이 논문에서는 그리스어나 라틴어의 등가물이 없는 근대적 명칭인 장애라는 용어와 범주를 사용한다(Trentin, L., 2011; Rose, M. L., 2003). 오히려 고대 로마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불연속적인 기형을 개념화하고 지칭했다. David(2000)는 비록 장애가 일반 사람들에게 꽤 만연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장애가 18세기 이전에는 사회적 범주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II. 장애의 탄생

1. 선천적 장애

영아 살해(*infanticide*)는 고의적으로 아주 어린 아이(1세 미만)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다. 갓 태어난 신생아를 직계존속이 살해하거나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 까지 많은 사회에서 그것은 널리 퍼진 관행이었고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에서 허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Kohl, 1978). 고대 로마 장애아는 탄생 시 유아유기(*exposure of infants*)를 당했다고 알려졌다. 이해하기 위해 로마인의 가족관과 경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대 로마인은 소규모의 가족이 대부분이었으며, 부모들은 한두 명의 아이만 갖고자 했다(차영길, 2010).

이는 아마 건강한 아이를 원하는 부모의 심리를 자극하였을 것이다. 또한 대부분 경제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았는데, Laes(2014)는 6천만 명의 로마 시민 중 4천만 명이 빈곤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 때문에 부모가 가난하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를 돌보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이고 자녀가 많아짐으로 생기는 집이나 장애아를 양육해야하는 부담을 줄이고자 원치 않는 아이가 탄생했을 때 영아 살해나 유아유기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높은 유아 사망률은 장애아의 생존을 더 어렵게 만들었을 것이다. 유아 사망률은 고대 사회가 다른 산업화 이전 사회와 다르지 않았던 일상생활의 한 측면이다. 태어난 후 첫 날은 특히 불안정했다. 비록 우리가 통계학적 인구 분석에 도움이 될 만한 고대 자료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않지만, 고대 역사학자들은 국제 연합에 의해 개발된 생명표 시뮬레이션에서 그럴듯한 비교점을 발견했다. 아마 고대 탄생한 30퍼센트에서 35퍼센트 사이의 유아들이 그들의 1년을 살지 못했을 것이다. 이후 전체 신생아의 약 50%가 열 번째 생일을 맞았다. 열 번째 생일을 맞은 사람들 중 약 절반이 50살이 되기를 바랄 수 있었고, 그들 중 3분의 1만이 60세 이상을 살았다.

기형과 장애는 고대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흔한 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영양실조, 질병, 세균 감염 등은 많은 유아들이 선천적이나 출생과정에서 가지고 태어났을 수 있다(Abrams, 2010). 기형이나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 인자들이 만연해 있었다.

로마 유아 살해의 이유를 장애로만 한정 지을 수는 없다. 빈번한 유아 살해는 경제적, 선천적 기형 이상으로 불건전한 관계에서 탄생한 아기일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요소, 성별을 들 수 있는데 종종 남아보다 여아가 더 많이 유기되었다고 설명된다. 이것은 남편이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 나타나있다. 남편은 아내에게 남자아이를 낳으면 살게 하고, 여자아이라면 유기라고 말한다. 이러한 고대 유아 살해 정황을 미루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선택에 직면했는지 또는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고민했는지 상상해 볼 수 있다. 단순히 장애가 아닌 경제력이나 원치 않는 출산, 여아 등의 이유로도 유기 가능성은 있다. 유기된 아기들은 살아남아 노예가 되었을 것이고 이는 유기 관행이 로마 사회에서 받아들여진 이유 중 하나였을 것이다. 유아 유기는 로마 사회 경제의 근간이 되는 노예제 공급을 촉진했을 것이다.

Laes(2018)는 대중의 인식에서, 고대 사회는 종종 영아 살해나 약자 제거와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가 자세히 살펴본 결과, 이러한 주장은 반복해 인용되는 5개 구절에 기초하고 있다.

첫 두 가지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건강한 아이에 대한 선택을 논하는 글이다. 그러나 맥락적으로 살펴보면 둘 다 '이상적' 상태의 이전의 '유토피아적' 맥락에서 신생아의 선택을 언급함을¹⁾알 수 있다. 세 번째는 로마의 플루타르코스의 한 문장에 근거하여 이 명성을 얻었다.

“한편 스파르타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아버지가 마음대로 기르지 못했다. 먼저 레스 케라고 하는 곳에 데리고 가서 검사관에게 보여야 했다. 아기를 검사해 보고 튼튼하면 기르도록 하여 땅을 나누어주지만, 건강하게 자랄 가망이 없는 아기는 타이게토스 산의 아포테타이 계곡에 갖다 버리게 했다. 따라서 여자들은 갓난 아기의 건강함을 알아보기 위해 포도주로 몸을 씻겼다. 그렇게 하면 건강한 아기는 포도주로 더욱 튼튼한 몸이 되지만 허약하거나 간질병이 있는 아기는 경련을 일으키기도 한다.”²⁾

이중 확인이었다. 여성은 간질이나 병든 것을 분류하기 위해 어린 아이들을 포도주로 씻었다. 플루타르코스는 미래의 스파르타 시민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검사관 앞에서의 시각적 검사들과 이어 포도주에 몸을 씻기는 일등이 진행되었다고 저술했다. 비판적으로 바라 볼 것은 플루타르코스는 그는 묘사한 사실 이후 약 700년 뒤를 살았던 인물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스파르타에 관해 저술한 플라톤, 크세노폰 등 동시대 작가들은 스파르타의 유아 선발 절차를 저술하지는 않았다. 또한 스파르타의 왕 아게실라오스(443-360년경)가 마른몸에 한쪽 다리를 절었음은 유명한 사실이다.³⁾

네 번째는 키케로가 언급한 12표법의 한 구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는 “끔찍하게 기형이 심한 아이는 살해되어야 한다”⁴⁾는 12표법의 내용을 정리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3세기에 이르러서야 점차 흔하지 않게 되었고, 부모가 장애가 있는 유아를 돌볼 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법으로 역전되었다. 기원후 374년 로마에서는 유아 살해가 중죄가 되었다.⁵⁾

다섯 번째는 세네카의 글이다.

“많은 아버지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아기를 버리는 관습이 있습니다. 신체 일부가 결핍되어 허약하고 생존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그들을 버리기를 좋아할 것입니다.”⁶⁾

1) Plato, Republic 415c, 460c; Aristotle, Politics 7.1335b

2) Plutarch, Lycurgus of Sparta, 16

3) Plutarch, Agesilaos 2, 그는 한쪽 다리가 다른 쪽보다 조금 짧아서 다리를 약간 절었다.

4) Cicero, On the Laws, 3.8.19

5) C. 1, Cod. Theod. III 3

6) Seneca, Controversiae 10.4. 16)

또 로마는 병든 짐승이 우리 양 떼에 감염되지 않도록 도살하며 나쁜 징조를 나타내는 새끼를 죽이고 또 아기가 약하거나 장애가 있으면 물에 빠뜨리기도 했다. 이러한 고대 사료들을 바탕으로 고대 장애유기는 힘을 받아 왔다.

에베소의 소라누스는 알렉산드리아와 로마에서 일한 기원 1세기와 2세기의 그리스 의사였다. 소라누스는 다양한 의학 서적을 저술했고 산부인과에 관한 내용도 다루었다. 그 책에서 소라누스는 모든 아이가 키울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썼다. 자녀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자질이 있는지 또는 장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때가 되면, 가장 좋은 때는 9개월 말이고, ... 땅에 내려놓으면 즉시 원기 왕성하게 운다. 울지 않고 오래 살거나 울지만 약하게 사는 사람은 좋지 않은 조건으로 의심된다. 또한 귀, 코, 인두, 요도, 항문 등 모든 부위와 감각에 완벽하다는 점, 즉 귀, 코, 인두, 요도, 항문의 막힘이 없다는 점, 모든 기관이 자연적인 기능이 둔하거나 약하지 않다는 점, 관절이 구부러지거나 펴지는 것, 모든 면에서 적절한 크기와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적절하게 민감하다는 점. 손가락들을 몸의 표면에 대고 누르는 것... 언급된 조건과는 반대의 아기라면, 양육할 가치가 없는 아기로 인정된다.”⁷⁾ 라고 상세하게 의학적 문제들을 살펴보는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로마인들 사이에 장애인이 언제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나름의 정의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사실 로마의 가정에서 많은 경우 장애가 있는 자녀가 살고 죽는 것은 아버지에게 달려 있다. 장애 아동은 종종 데려가서 별거벗은 채로 숲 속에 남겨졌다. 로마인에게 장애아 출산을 큰 불행으로 여겼다. 많은 로마인들이 나머지 가족에게 정신적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생명을 연장하는 일은 무의미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장애아들의 높은 비율은 태어난 직후 야외에서 버려지고 죽음 당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주장이 나치 독일에서 특히 열심히 연구되었다는 것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인종차별주의자와 나치 이데올로기가 강조한 고대 사상의 한 측면인 우생학을 실천하고 있다는 비난으로부터 그들이 자긍심을 가지던 역사인 고대 그리스와 로마로 도망쳤다. 이러한 논의는 결과적으로 고대 작가들의 실제 생각보다는 고전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사용되었는가에 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오히려 고대인들이 인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고대를 우생학과 잇는 일은 무의미할 것이다(Petersenet al. 2003).

⁷⁾ Eastman, N. J. (Ed.). (1991:79-80).

2. 후천적 장애

후천적인 기형은 훨씬 더 흔했다. 많은 사람들이 전투, 스포츠 경기, 바이러스성 및 박테리아 성 질병 등에 의해 장애를 입었다. 심지어 부러진 팔이나 다리 같은 사소한 골절조차도 영구적 장애를 입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었다.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영구적인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많은 질병에 대한 치료법이 없었다. 당시 고대 세계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누구나 평생 동안 큰 부상이나 기형을 입지 않는 일은 매우 어려웠다.

한번 장애를 획득하면 생명이나 신체를 위협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장애를 얻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다. 골절을 당한 사람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의 회복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현대 시대의 다른 사람들보다 영구적인 장애를 가질 확률이 훨씬 더 높았다.

먼저 살펴볼 것은 출산 과정에서 장애의 습득이다. 고대 세계의 어느 곳에서도 출산은 여성의 일이었다. 출산은 집에서 이루어졌고 여성 조산사, 가족 또는 친구가 책임을 져야 하며 복잡한 출생의 경우 의사나 외과 의사가 아닌 한 남성은 일반적으로 참여하지 않다. 아이들을 낳는 것은 위험한 의무였으며 수천 명의 죽음이 제국 전역의 묘비에 기록되어 있다. 감염, 출혈, 산모의 아주 어린 나이 등은 산모와 아기에게 높은 위험요소가 되었다. 임신 50건 중 1건의 출산은 산모 사망으로 끝났다.

고대 세계에서 출산 행위는 산모와 영유아 사망률이 높아 엄마와 아기모두에게 극도로 위험했다. 위생과 관련해 미생물에 대한 지식 부족은 엄마와 아기의 건강과 생존에 큰 영향을 미쳤을 듯하다. 전통 의학은 경험 많은 산파의 지도와 지원, 약초 사용, 신에게 기도, 제물을 바치는 제사에 의존했다.

로마의 장애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고대 로마 제국의 확장은 거의 모든 경우에 군사력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로마 문화는 전체적으로 확장과 보호를 위해 군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끊임없는 공격과 지리적 확장으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공격으로 인해 작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이들 군대에 대한 전문 의료 서비스가 필요했지만(Nutton, 2016), 전문화된 형태의 의료 서비스는 아우구스투스 시대(기원전31-기원후14)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 전에는 군인을 돌보는 일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다. 군인들은 자립하여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고 스스로 질병을 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Byrne, 1910).

유스티니아누스 1세에 의해 발표된 로마 민법의 일부인 로마법대전에 따르면, 세 가지 종류의 제대가 있었다고 한다.⁸⁾ 퇴역 군인의 경우 제대 유형이 중요한데, 제대 유형이 이후 삶의 방식도

결정하기 때문이다. 제대 유형은 *missio causaria*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제대), *missio ignominiosa* (불명예스러운 제대) 및 *honesta missio* (명예로운 제대)가 있었다. 명예 제대는 군복무를 마친 후 또는 군인의 헌신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 특별한 황실 선물로 주어졌다.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함 혹은 원인 불명의 병으로 인해 복무가 부적합해진 군인들은 상해제대를 받을 자격이 주어졌다. 불명예제대는 군 기강과 법을 따르지 않는 군인들에게 내려졌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평판을 잃게 될 것이고 그들은 퇴역 군인의 특권인 토지나 돈, 시민권, 결혼할 권리를 받지 못했다.

많은 학자들이 로마군에서 의료 서비스를 연구해왔다. 의료병은 제국 시대부터 줄곧 군대에 있었다. 군사 수용소에는 병실이 지어졌고 많은 돈이 군대의 건강에 투자되었다(Campbell&Trittle, 2013). 그러나 군을 떠나 시민사회로 복귀한 병사의 삶은 지금까지 거의 조사되지 않았다. 로마 시민사회에 장애를 가진 참전용사들의 통합 군복무 후 눈에 보이는 신체적 결함이나 부상을 입은 모든 군인들이 상처나 질병에 의한 손상은 반드시 장애와 관련이 없더라도 일상의 불편을 초래하는 외모의 손상을 말한다. 분명히, 상호 배타적이지 않지만 종종 공존하는데, 안구 손실이 좋은 예이다. 결국, 병사들은 류머티즘 질환, 질병, 전염병, 그리고 기후의 영향과 같은 다양한 전쟁과 관련된 일상적 위험에 빈번히 노출되어 있었다.

로마 제국은 군인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통제되었다. 군대의 핵심에는 훈련, 훈련, 전투 능력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군단이 있었다. 아우구스투스가 집권할 때까지 군대는 60개 군단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각각은 최대 480명으로 구성된 10개 집단으로 나뉘었다. 기원 후 1세기 군인의 최소 복무 기간은 20년이었습니다. 각 군단병은 무기와 갑옷,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단검을 휴대했다. 또한 '필름'(창 던지기), 투구, 갑옷, 방패 및 보급품이 담긴 꾸러미를 휴대했으며, 군인들은 장거리를 행군하고, 정확한 대형으로 싸우고, 가지고 다니는 모든 무기를 사용하여 전문적으로 죽이도록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

군인들에게 가장 힘든 곳은 로마 제국의 변방이었으며, 변방의 군단병은 보급품이 충분하지 않았고 적대적인 지역 부족과 맞닥뜨리는 아슬아슬한 일상을 견뎌야 했다. 군인들과 그 가족들은 그곳이 할 일이 거의 없는 춥고 외딴 적대적인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로 군인들처럼 그들은 여가 시간의 대부분을 집에 편지를 쓰고 소식과 따뜻한 옷을 요청하는 데 보냈습니다. 그들이 은퇴했을 때, 모든 군단병은 경작할 토지를 가질 자격이 있었다. 군인들은 평생 충성스러운 봉사에 대한 이 관대한 보상을 고대했다.

8) Dig., 3.2.2.2.

로마가 토지 지급에 관한 약속을 항상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서기 14년, 티베리우스가 황제가 된 직후, 중부 유럽의 군단 사이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군인들은 로마가 약속의 정신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불평했다. 군 생활의 시련과 결합된 복무 기간은 군인들이 깊은 동료애를 키울 수 있음을 의미했으며 이러한 불만은 다른 군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반란은 추진력을 얻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장교를 약탈하고 죽였다. 심각한 군대 반란은 국내외에서 그의 권력이 군대에 대한 통제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황제에게 잠재적인 재앙을 불러일으켰다.

최대 규모로 볼 때 로마 군대에는 약 50만 명의 군인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수의 병사들을 질서 있게 유지하기 위해 '군단'이라고 하는 그룹으로 나누었다. 각 군단에는 4,000~6,000명의 병사가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보통 촘촘한 대형으로 전투를 위해 줄을 섰다. 무시무시한 화살과 포병의 폭발이 있을 후, 로마 병사들은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적을 향해 진군했다.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창을 던지고 검을 뽑아 적에게 돌진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기병을 사용하여 도망치려는 사람을 추적했다.

Ⅲ. 고대 장애인 서술

이렇게 많은 아기들이 이미 살아남지 못했거나 침묵 속에 제거되었다면, 결점을 가지고 세상에 나온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유아 살해 주장에도 불구하고 생존자는 있었다. 고대 유물을 살펴보면 선천성 기형을 검사한 결과 다양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다운증후군, 구순 구개열증, 왜소증, 짧은 사지, 다지증, 소두증 등을 볼 수 있다. 고고학과 골격학적 연구는 고대 장애의 존재를 분명히 하는 점을 강화해 왔고, 이러한 연구는 출생부터 현저한 신체적 결함으로 고통 받은 사람들의 무덤을 밝혀냈다. 다시 말해 고고학은 때때로 부모의 연민과 생존자의 존재를 암시한다(Dettwyler, 1991). 다른 고대 출처와 고고학적 증거는 유아학살이 행해진 상층되는 기록들에서 분명한 것은 장애를 가진 유아들이 획일적으로 유기를 당한 것만은 아니라 선천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존재했다는 것이다.

그리스와 로마의 고대 서양 장애에 대한 관념은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신들의 분노를 담고 있고 죽어야 한다는 믿음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다양한 견해가 공존한다. 장애를 얻은 사람들이 나중에 노예, 시민, 그리고 군인으로서 사회에 통합되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살펴 볼 자료들을 고대 사회에 일반화하기에 어려운 측면은 대부분의 사료들이 사회적으로 강하게 편향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우리는 말과 언어, 이성이 밀접하게 얽혀 있는 문화에서 소수

의 도시 지배층 남성의 자료에 의존해 재구성할 수 밖에 없다.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성을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을 이들의 역사를 살펴보는 일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장애인 노예들과 장애인 빈민층들의 결과는 비참했을 것이다. 귀족 집안의 여자나 사생아에 대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장애인으로 간주하는 개인들은 고대 로마의 많은 장애인 집단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몇몇은 거기에 속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배경 또는 사회 계층은 핵심 개념이다.

역사학자들은 장애인들이 외면당하거나 살해된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로마 사회 내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려고 노력했다. 이 장에서는 로마 신화 속에 등장하는 장애를 가진 신 불가누스와 로마 장군이었던 실루스 그리고 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를 살펴보려 한다.

1. 신화에 나타난 신, 불가누스

로마 제국은 다신교 문명이었고, 이는 사람들이 여러 신과 여신을 인정하고 숭배했음을 의미한다. 로마 신화는 로마인 문학과 시각 예술로 대표되는 고대 로마 문화의 집합체이다. 로마 민속, 로마 신화는 이러한 표현의 현대 연구를 참조하고, 어떤 기간에 문학과 다른 문화의 예술 표현으로 주제에 있다. 로마 신화는 이탈리아 민족의 신화와 궁극적으로 인도유럽조상의 신화에서 유래한다.

로마 신화는 그리스 신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잠재적으로 일찍이 로마의 원사(protohistory)이지만 주로 그리스 영향의 헬레니즘 시대와 로마의 그리스 정복을 통해 로마 작가에 의한 그리스 문학 모델의 예술적 모방을 통해 직접 그린다. 로마인들은 확인된 그들의 자신의 신들의 사람들과 고대 그리스 밀접한 역사적 같은 경우에 관련이 있었다. 특히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쓰여진 오비디우스의『변신』에 나오는 그리스 신화의 판본들은 정경으로 간주되게 되었다. 신성한 활동에 대한 이야기는 의식과 숭배가 일차적인 로마인보다 그리스 종교 신앙 체계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로마 종교에서 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가장 두드러진 요소는 신화판테온에서 흡수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로마 제국이 확장됨에 따라 로마인들은 그들의 문화에 맞는 한 다른 외국 신들을 종교에 포함시켰고 마침내 12세기에 걸친 제국의 끝 무렵에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로마인들은 그들의 신이 불멸이며 하늘, 땅, 지하 세계를 다스리는 신이라고 믿었다. 로마 종교에 존재하는 엄청난 수의 신과 여신은 많은 신들이 일부 일반적인 개념, 이미지, 특성 및 감정을 의인화함

으로써 확대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로마 종교는 매우 창의적이고 풍부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불의 신 불카누스였다. 그리스의 헤파이스토스 신을 기원으로 로마인들은 그들의 불카누스를 복제해 헤파이스토스와 불카누스의 기원 이야기는 거의 같다. 불카누스는 불의 신이자 화산의 신이었고, 그는 무생물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천부적인 대장장이이자 재능 있는 공예가였다. 불카누스는 인간으로서의 직업을 가진 유일한 신이다. 신체적인 아름다움으로 구별되는 다른 불멸의 신들과는 대조적으로, 불카누스는 그의 발 중 하나가 절뚝거리고 심지어 그의 어머니에 의해서도 못생긴 것으로 여겨진다. 헤파이스토스와 불카누스를 둘러싼 신화들은 장애와 관련된 서양 시적 전통의 초기 저작들 중 하나이다(Kerényi, 2016).

로마 신 불카누스의 장애에 관해서는 장애인으로 태어난 신이라는 설도 있고 올림푸스에서 떨어져 장애를 가지게 됐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잔치에서 포도주 청지기의 역할을 하고 다른 신들은 불카누스를 비웃었다.

왜 로마의 신(혹은 그리스 신)은 장애를 가질 필요가 있었을까? 완벽한 육체적 화신이 되려고 했던 신들. 역사학자들은 이 문제를 둘러싼 여러 이론을 만들어냈다. Garland는 또한 마치 보상인 것처럼 설명함으로써 이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한다. 불카누스의 장애는 특별한 선물로 보상받았다. 이 선물은 별건이 “생명체를 무생물 물질에 주입하고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갑옷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이다(Bruce&Young, 1998)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에 따르면 불카누스는 올림푸스 산에서 추락하여 비선천적 절뚝거림을 일으켰다고 소개한다.⁹⁾ 어머니 헤라는 화를 내며 모인 신들 사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보아라, 그[제우스]는 나 외에 모든 축복받은 신들 중에서 으뜸인 밝은 눈의 아테네를 낳았다. 그러나 내가 낳은 내 아들 헤파이스토스는 모든 복된 신들 중에 연약하고 발이 마른 자로 하늘에서 내게 부끄러움과 욕을 주는 자라 내가 친히 내 손으로 잡아 내쫓아 큰 바다에 엎드리지게 하였느니라”¹⁰⁾

불카누스는 다리는 절뚝거리고 발은 기형이었기 때문에 팔의 힘과 손의 기술은 그에 상응하게 보상을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고대 세계에서 재단사와 장인에서 석공에 이르기까지 숙련된 일에 고용된 많은 장애인을 볼 수 있다.

9) Homer, Iliad 1.600.

10) Homeric Hymn, To Apollo 310 (transl. A.T. Murray, Loeb Classical Library (Cambridge 1924) 94-95)

2. 마르쿠스 세르지오 실루스(Marcus Sergius Silus)

제2차 포에니 전쟁(BC 218-201년)동안 군사 작전에서 오른손을 잃은 마르쿠스 세르지오 실루스는 그 뒤 왼손으로 검을 잡고 절단된 오른손으로는 방패를 잡기 위해 철제 손을 착용했고 계속해서 전쟁에 참여했다. 그리고 두 번의 원정에서 실루스는 부상을 입었다. 손이나 발을 거의 사용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는 나중에 여러 전쟁에 참전했지만 장애를 얻게 됐다. 그는 한니발에게 두 번 포로로 잡혔고 두 번째 포로 생활에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20개월 동안 사슬과 족쇄에 갇힌 후 탈출했다. 네 번이나 그는 왼손으로만 싸웠고 두 마리의 말이 그의 밑에서 죽임을 당했다. 크레모나 포위전을 일으켜 플라센티아를 방어하고 갈리아에 있는 적의 진영 12개를 점령했다. 이 모든 것은 실루스가 총독직에 있을 때 동료들이 실루스의 신체적 결함을 이유로 신성한 의식에서 그를 제외시키려고 할 때 그가 한 연설에서 알 수 있다.¹¹⁾

실루스는 자신의 용기의 영구적인 지표라고 생각하는 장애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모델이며, 이로 인해 자신을 주변화하려는 비방자로부터 자신을 방어 그는 의수를 처음으로 역사에 남겨진 사용자로 보조 재활에서 유명하다. 금속 의수는 그가 전투에서 방패를 잡을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실루스는 포에니 전쟁 동안 큰 역할을 했으며, 전투 기간 동안 그는 적어도 23번의 부상을 입었고 오른손도 잃었고 이를 철 의수로 교체했다. 에피로테스가 기원전 216년에 카르타고를 지원하기 위해 로마에 선전포고하고 일리리아의 로마 수비대를 진군했을 때, 한니발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더 많은 유능한 장군이 필요했기 때문에 실루스가 구호 부대를 이끌도록 선택되었다.

3. 클라우디우스 황제

로마 제국, 2대 황제 티베리우스의 조카이자 게르마니쿠스의 동생이고 3대 황제 가이우스의 숙부인, 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장애를 살펴보자. 고대 장애인 연구는 사료의 제한과 오랜 기간 지속된 편견으로 탐구하기에 순탄치 않지만, 개인으로 상당한 자료가 남아있는 사람은 단연코 황제인 클라우디우스다. 황제인 클라우디우스의 장애 사례를 로마의 장애인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문제가 있지만, 황제라는 특별한 위치에 현대의 시각에서도 두드러지는 신체적 결함을 가진 이가 올랐다는 사실은 충분히 역사적 제고를 해볼 만한 일이다.

클라우디우스는 기원전 10년 8월 1일 로마의 최상류층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아우구스투스의 아내인 리비아의 아들 드루수스이며 어머니 안토니아는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딸

11) Pliny. Natural History 7.28.104-5

이었다. 출산 이후 클라우디우스의 신체적 결함을 그의 부모가 어떻게 받아 들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14세의 토가 비틸리스 의식(the ceremony of the toga virilis)을 전통적인 행렬 없이 자정에 비밀리에 거행했다는 사실을 통해 부모가 그를 알리기 꺼려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의 조부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는 어린 소년을 동정했지만 그의 나이와 지위에 맞는 공직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클라우디우스의 조부인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클라우디우스가 자신의 감각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지 궁금했다. 때때로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으며 실제로 클라우디우스의 장애에 대한 가장 큰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그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조롱을 방지하기 위해 공적인 자리에서 클라우디우스를 보호하기도 했다.¹²⁾

클라우디우스는 가족과 상류 계급의 로마인들로부터 고립되어 상대적으로 느긋한 생활을 하며 생애초반 40년을 보냈다. 그러나 그는 역사와 문학 연구에 진지하게 참여했다. 클라우디우스는 로마 역사를 142권이라는 방대한 분량으로 기술한 역사가 리비우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 클라우디우스의 역사 연구는 에트루리아와 카르타고 역사에 관한 책 저술이 알려져 있고, 자서전을 집필하기도 했지만 남아 있는 저작은 없다.

클라우디우스가 24세였을 때, 아우구스투스가 죽고 티베리우스가 황제가 되었다. 클라우디우스는 정계 인사를 위해 그에게 접근했지만, 거액의 돈 외에 실제로 티베리우스는 그를 모욕하고 무시했다.¹³⁾

41년 1월 24일, 가이우스 황제가 근위대 대대장이었던 카시우스 카이레아와 코르넬리우스 사비누스, 그리고 소수의 근위병들에 의해 살해당했다. 가이우스를 죽인 직후, 근위병 하나가 활실 커튼 뒤에 숨어있는 가이우스의 숙부 클라우디우스를 우연히 발견하고 그를 끌러내어 근위대 병영으로 데리고 갔고 바로 그날 그를 황제로 공포했다. 클라우디우스의 나이는 오십 세였다.

클라우디우스가 그의 아내 아그리피나의 음모로 죽게 되는 54년 10월 13일까지 약 14년간 통치했다. 그는 의붓 아들 네로에게 뒤를 잇게 한 채 세상을 떠났다. 세네카가 쓴 것으로 알려진 작품 Apocolocytosis divi Claudii (신성한 클라우디우스를 호박으로 만들기)에서 그는 클라우디우스의 장애를 묘사한다.

“키가 크고, 머리카락에 회색이 흩뿌려진 남자. 그는 끊임없이 머리를 흔들기 때문에 무언가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였고 오른발을 끌었다.”

12) Suetonius, The Lives of the Caesars, 4.2.

13) Ibid. c.5.1.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도 클라우디우스의 신체에 관한 문제점을 기록했다.

“키는 크지만 호리호리하지는 않았고, 매력적인 얼굴에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목이 굵었다. 그러나 걸을 때는 약간 무릎 때문에 비틀거렸고 거슬리는 점들이 많았다. … 입에 거품을 물고 콧물을 흘리곤 했으며, 말을 더듬을 뿐 아니라 머리를 늘 심하게 흔들었다.”¹⁴⁾

왕족인 클라우디우스의 부모는 클라우디우스를 정신적으로 결핍된 사람으로 여겼고, 일반 대중과 격리되어 단호하게 훈육하는 가정교사의 보살핌을 받았다.¹⁵⁾ 역사가들은 그가 빈번한 질병으로 인해 허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대중 앞에 나타날 때 보호용 망토로 숨이 막혔다고 보고한다. 이렇듯 클라우디우스는 눈에 띄는 장애를 가졌다고 알려졌다. 따라서 클라우디우스의 병명에 관한 논의는 오늘날 까지 지속돼왔다. 오랫동안 소아마비였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뇌성마비의 변종일 수 있다는 제안이 우세하다.

Leon(1948)과 Emberger(2012)를 포함한 많은 학자들은 클라우디우스를 뇌성마비로 평가한다. 뇌성마비는 뇌 손상으로 인해 여러 가지 병리현상을 일으켜 움직임과 자세,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 뇌성마비는 운동경련, 운동장애, 혼합/기타 등으로 분류된다(Emberger, 2012). 클라우디우스의 신체적 이상에는 오른쪽 다리와 아마도 팔 근육 약화로 인한 정상적이지 않은 걸음걸이가 증언됐다. 또 그는 팔다리의 떨림과 머리의 비자발적 떨림이 있었다. 클라우디우스는 거칠고 말을 더듬는 방식으로 불명확하게 말했고, 종종 입에 침이 고이고, 코가 막 뛰는 경향이 있었다. 지능은 정상이거나 약간 손상된 추체외로 변형에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이 복합적인 증상이 뇌성 마비의 진단에 적합하고 아마도 편마비 마비였으리라 예상한다.

A. Murad(2010)는 클라우디우스의 병명을 뚜렛 증후군으로 설명했다. 그는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는 광범위한 신체 틱과 장애를 겪었으며, 이를 이유로 많은 학자들이 클라우디우스가 뇌성마비를 앓았다는 가설을 세웠다. 보행 장애, 머리 틱 및 복합 언어 장애를 기반으로 한 GTS(Gilles de la Tourette) 증후군을 앓았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그는 클라우디우스의 문제의 원인을 현대의학 지식에 비추어 고대 역사 자료들을 재검토하여 클라우디우스가 투렛증후군을 앓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14) Suetonius, c. 10.1.

15) Ibid. c.2.1.

클라우디우스가 오늘 날 어떤 진단을 받았을지 단정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고대 저자들은 현대 의학체계로 저술하지 않았으므로 현대 용어로 동일시하려는 시도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클라우디우스는 선천적 문제들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이러한 신체적 어려움은 자타가 보기에 뚜렷하다는 사실이다.

클라우디우스가 황제가 되었다고 해서 고대에 장애인들에게 비장애인과 같은 권리가 주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또 일반적인 장애인의 지위가 높았다고 설명할 수도 없다.

그러나 눈에 띄지 않는 결함- 예를 들어 청력이나 내과 질환-이 아니고, 황제에 제위한 뒤 사고로 생긴 장애도 아닌 신체적 결함을 지닌 사람이 황제가 됐다는 사실은 분명히 고대의 장애에 관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로마 황제에게 군사적 업적의 의미는 매우 크다. 기원전 1세기까지 로마는 영토 팽창에 집중하였기에 황제가 전쟁에 참여하고 의미있는 공을 세울 수도 로마에서 개선식을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러나 클라우디우스는 등자가 없던 당시 말에 타기도 어렵다. 현실적인 신체적 결함을 극복할 수는 없지만 황제로서 정복에 참여한 이력을 남기고자 브리타니아 원정에 참여하기도 했다. 육체적으로 군 업무와는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1세기에 로마가 이룩한 몇 안 되는 영토 확장의 업적으로 꼽히는 브리타니아 정복을 이루었다. 브리타니아 정복은 40년에 칼리굴라가 구상했지만 3년 후인 클라우디우스의 원정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공격 부대의 지휘는 아울루스 플라우디우스가 맡았지만, 클라우디우스도 북쪽의 갈리아 지방으로 가서 16일 동안 참여했다. 그는 카몰로두눔에서 브리타니아를 속주화하는데 필요한 기본 정책을 결정했다. 그는 카몰로두눔에 로마 시민인 퇴역병을 이주시켜 식민도시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이 후 그는 로마로 돌아와 다음해에 개선식을 가졌다. 그는 원로원에서 허락한 정식 개선식을 가졌는데, 정식 개선식에서는 네 필의 백마가 끄는 전차를 몰아야 했다. 그가 과연 전차를 몰 수 있었는지는 의문스럽지만 황제로서의 위엄을 위해 개선식은 필수적이었다.

IV. 선천적 장애에 대한 견해

의학적 진단-예를 들어 아기의 체중 측정, 현대의 정밀 검사 등-이 없는 세상에서는 정상에 대한 인식과 기대에 대한 의학적 결정은 모호했을 가능성이 크다. Edwards는 더 나아가 어린이의 기형이 자동적으로 경제적 부담과 연관되어 있다는 가정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짓는다. 많은 장애인들이 직업과 근로소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Davis, 2016).

이번 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장애의 사례들 법적, 사회적, 철학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장애에 대한 로마인의 시선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1. 로마법

로마법이라는 용어는 종종 로마 사회의 법 이상을 의미한다. 로마인들이 발전시킨 법제도는 로마제국이 사라진 후 오랜 시간 동안 다른 민족들의 법에 영향을 미쳤고 로마의 지배를 받지 않은 나라들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예를 들면 독일의 많은 지역에서, 1900년 제국 전체에 대한 공통법체계가 채택될 때까지 로마법을 “보조법”으로 사용했다. 즉, 상반되는 현지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않는 한 근대까지도 적용했다는 말이다. 그러나 로마제국이 멸망한 지 한참 뒤에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었던 이 법은 원래의 로마법이 아니었다. 그 기초는 실제로 유스티니아누스 1세의 성문화된 법률인 로마법대전이었지만, 이 법률은 11세기 이후 세대의 법학자들에 의해 해석, 개발 및 수정되었으며 로마 이외의 출처에서 추가되었습니다.

로마 공화국과 제국이 존재했던 광대한 기간 동안에는 많은 법적 발전 단계가 있었다. 공화정 시대(기원전 753~31년)에 민법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는 관습이나 법률에 따라 로마 시민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3세기 중반에는 또 다른 유형의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만민법은 로마인들이 그들 자신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하기 위해 개발했다. 만민법은 입법의 결과가 아니라 외국인이 연루된 사건에서 정의를 집행 할 책임이 있는 치안 판사와 총독에 의해 발전이 되었다. 만민법은 큰 범위로 된 유연한 법으로, 외국인뿐만 아니라 시민 치안을 위해 광범위하게 적용됐다.

다른 고대 체계와 마찬가지로 로마법은 원래 시민의 원칙, 즉 국가의 법은 시민에게만 적용된다. 외국인들은 권리가 없었고, 그들의 국가와 로마 사이의 어떤 조약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한, 로마인에 의해 소유자가 없는 재산처럼 압류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일찍부터 상호 보호를 보장하는 외국과의 조약이 있었다. 조약이 없는 경우에도 로마의 증가하는 상업적 이익으로 인해 로마는 어떤 형태의 정의를 통해 국경 안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을 보호해야 했다. 치안 판사는 로마법을 단순히 시민의 특권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었다.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외국인들은 아마도 초기의 성가신 형식주의에 반대했을 것이다.

12표법은 장애아를 보통 돌팔매로 사형시켜야 한다는 법이 포함되어 있었다.¹⁶⁾ 또한 디오니시오스는 도시의 설립자 로물루스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언덕에 유기하도록 요구 했

¹⁶⁾ Lucilius, The twelve tables 4.3

다고 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3세기에 이르러서야 점차 흔하지 않게 되었고, 부모가 장애가 있는 유아를 돌볼 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법으로 역전되었습니다. 기원후 374년 로마에서는 유아 살해가 중죄가 되었다.¹⁷⁾

최초의 법률 텍스트는 기원전 5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12표법이다. 8년 간의 정치적 투쟁 끝에 평민의 사회 계급은 귀족들에게 솔론의 법칙을 베끼기 위해 아테네로 대표단을 보내도록 설득했다. 그들은 또한 비슷한 이유로 대표단을 다른 그리스 도시에 파견했다. BC 451년에 10명의 로마 시민이 법률을 기록하도록 선택되었다. 그들이 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그들은 최고의 정치 권력을 부여받았지만, 치안 판사의 권한은 제한되었다. 기원전 450년에 10개의 서판(tabulae)에 법을 만들었지만 이 법은 평민들에게 불만족했고 두 번째 십인위원회는 기원전 449년에 두 개의 서판을 더 추가했다. 이 새로운 십이표 법이 인민의회에서 승인되었다.

현대 학자들은 라틴 역사가들의 정확성에 의문을 표한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두 번째 십이표 법이 일어났다고 믿지 않는다. 451년의 관습법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을 포함했으며 로마에서 주도적인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믿었다. 게다가, 초기 로마법에 대한 그리스의 영향에 관한 질문은 여전히 많이 논의된다. 많은 학자들은 라틴 역사가들이 믿었던 것처럼 귀족들이 그리스에 공식 대표단을 파견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 대신, 그 학자들은 로마인들이 로마와 그리스 세계 사이의 주요 관문인 그리스 도시 마그나 그라에키아(Magna Graecia)에서 그리스 법률을 획득했다고 추측한다. 현재 십이표법의 원본은 보존되지 않기에 의문은 더욱 강해진다. 서판은 기원전 387년에 로마가 갈리아에 의해 정복되고 불태워졌을 때 파괴되었을 것이다.

살아남은 파편들은 이 서판이 현대적 의미의 법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적용 가능한 모든 규칙에 대한 완전하고 일관된 시스템을 제공하거나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한 법적 해결을 제공하지 않았다. 오히려 십이표법에는 당시 존재하는 관습법을 변경하기 위해 고안된 특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조항은 법률의 모든 영역과 관련이 있지만 가장 큰 부분은 사법 및 민사 소송에 집중한다.

로마법은 주로 장애인의 재산권을 보호하였다. 초기 로마시대에 지적 결핍자로 지정된 사람들은 그들의 업무 관리를 도울 보호자를 제공받았다(Winzer, 1993).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애로 인해 군대에서 일찍 은퇴하도록 강요받은 군인들은 로마 국가에 의해 보살핌을 받았다. 그들은 처음에 그들의 시간을 다 보낸 퇴역 군인들과 같은 특권을 누렸다. 법적으로 두 퇴역 군인 그룹은 동일한 지위를 공유하여 생활했다.

17) C. 1, Cod. Theod. III 3

2. 고고학적

고대 그리스 연구보다 고대 로마 연구를 위한 자료와 출처가 훨씬 더 많다. 대부분의 로마 출처는 지배 엘리트 출신이다. 일반적으로 하층 계급과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다. 고고학자들과 역사가들은 고대 로마를 연구할 때 주의 깊게 밟고 데이터가 필요한 만큼만 가는 것이 중요하며, 한계를 이해하고 구조의 취약성과 모순의 존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경고한다.

고대 세계에서 신체 장애인의 이러한 증거 발견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산발적이다. 오늘날 신체 및 지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 의학적 합병증에 직면하는 것처럼 고대 세계에서도 그러했다. 고대 로마에서 영유아나 부모가 장애아동을 테베레강에 던졌다는 소문은 과장일 수 있지만 무시해서는 안된다.

장애인에 대한 물질적 증거는 고전 및 고고학 분야의 장애 연구를 촉진시킨다. 고대 세계에서 장애인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희소한 고고학적 증거는 대부분 의도적인 수색보다는 우연한 발견에서 비롯된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난쟁이들과 꼽추들이 행운의 화신으로 보여지고 몇몇 운 좋은 맹인들이 선견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 또한 제한적으로 보인다. Lisa Trentin은 연구에서 장애인의 역사적 주변화에 대한 기사로 실렸다. 그녀의 연구는 고대에 이러한 상태를 시각화한 최초의 포괄적인 연구로 간주된다. 고대의 상징인 ‘고전적인 몸’에 초점을 맞춰 모자이크, 작은 조각상, 도자기, 벽화, 조각, 고전 문헌에 묘사된 척추 후만증으로 알려진 “꼽추”의 시각적 표현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물품들을 공공 및 사적 공간에서 볼 수 있기에 신체에 대해 생각할 때 고대 장애인의 삶이 고대 문헌에서 시사하는 것보다 더 다양했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고고학에서 고대 장애는 더 연구해야 할 분야이다. 이는 고대 세계에서 장애인의 존재와 경험이 제한적이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고대부터 현재까지의 전체적 부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관점은 오늘날 장애인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계의 현실은 고고학자들이 신뢰성과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에 상당한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연구 역시 고고학과 고전에서 전통적으로 다른 문화적 발견만큼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간과되었을 수 있다. 이것은 학계의 정치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간 경험의 역제제로서의 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점을 드러낸다.

고고학자들은 서기 3세기 로마 묘지(Minozzi et al. 2015)와 신석기 시대의 다운 증후군 환

자의 부상(Diamandopoulos et al. 1997)에서 거인의 증거를 발견했다. 다운 증후군을 나타내는 다른 골격 발견으로는 프랑스의 어린이 해골, 독일의 여성의 시체, 인신 희생의 예가 될 수 있는 로마의 습지 지역의 여성 해골이 있다(Czarnetzki et al. 2003). 자폐증과 같은 다른 지적 장애는 특별한 신체적 특징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식별하기가 더 어렵다.

고전학자들이 장애에 대한 전체론적 연구를 수행하려는 경우 골격 증거에만 의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문헌은 이 하위 영역의 출처가 될 수 있지만 중요한 재량권이 필요하다. 지적 장애는 고대 세계에서 의학적 진단이 없었기 때문에 사료에 장애나 기형과 같은 현대적 단어가 없다. 예를 들어 라틴어로 누군가를 말괄량이 나 어리석은 사람으로 묘사하는 것은 문맥에 따라 지적 장애가 있거나 단순히 세련되지 않은 사람을 암시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격 특성에 의존하는 것조차 까다로울 수 있다.

Goodey와 Rose는 “정신 상태, 신체 성향 및 식사 예절”이라는 기사에서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설명하는 것은 “바보”와 같은 추상적인 설명이 아니라 구체적이기 때문에 장애를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고고학적 발견은 종종 예측할 수 없고 우연한 일이지만, 고전주의자들은 이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 그러한 어휘를 포함하는 문헌을 찾기 위해 문서를 사용할 수도 있다.

3. 사료에 나타난 장애인

장애의 범주 확실히, 노동이라는 용어조차 일반적으로 고대 로마 세계에 단순히 겹쳐질 수는 없다. 고대 법학자들에게 노예들은 일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주인들이 명령한 일을 했을 뿐이다. 좀 더 실용적이고 일상적인 수준에서, 고통이 어떤 사람들이 특정한 일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을 고대인들은 이해했다. 이러한 해석은 기능적 손상에 대한 우리의 개념에 매우 가깝다. Galen은 질병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질병은 자연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상태로 정의되며, 따라서 기능을 저해한다.”¹⁸⁾

¹⁸⁾ G. (Galen, De sanitate tuenda 1.5 [6.18 Kühn])

반대로, 그는 건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아무런 고통도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건강이다.”¹⁹⁾

질병은 자연이 우리에게 부여한 육체적 건강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신체의 어떤 상태로 정의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질병이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같은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감기나 열은 몸 전체의 질병이다. 예를 들어, 실명은 어떤 부분의 질병이다. 비록 사람은 이런 상태로 태어날 수 있지만 결점과 질병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마치 누군가가 말장난하는 사람과 같이, 이것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라기 보다 오히려 흠이기 때문이다.

몇몇 유럽 언어에서 stoic이라는 단어는 불평하거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불행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묘사하거나 부를 때 사용된다. 금욕주의적이라는 단어의 현대적 사용은 고대 기독교와 많은 유사점을 보여주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 학파 중 하나의 복잡성에 대한 매우 피상적이고 극히 좁은 해석에 불과하지만 불행에 대한 인내(또는 방해받지 않는) 것은 실제로 스토아 철학의 주요 특징 중 하나다. 무감각(또는 무감각)은 스토아 철학자 개개인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을 비르사피엔스(Virsapiens)라고 부른다. 불행을 견디는 것(constantia)은 도덕적인 힘(fortitudo)의 중요한 측면이며 신들이 우리의 기대에 반대하는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그들의 결정에 대해 불행해서는 안 됩니다. 불행은 일반적으로 선도 악도 아니며 스토아 철학자들의 눈에는 실제 가치가 없는 이른바 무차별(무관심한 것)의 영역-자신의 삶, 평판, 건강, 빈곤, 사회적 지위 등-에서 발생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자신의 죽음이나 친구들의 죽음을 눈물 흘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정신적 육체적 장애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무엇일까? 장애를 무차별화로 보는 것도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 소세네카의 신성한 클라우디우스를 호박으로 만들기에서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장애를 조롱했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 심신 구별에 대한 스토아 학파의 견해에 초점을 맞추고 게다가 나는 소세네카와 같은 중요한 스토아 철학자가 명시적으로 신체 손상을 조롱한다는 사실과 이러한 구별의 양립성을 탐구할 것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노예, 고문, 죽음, 질병 또는 심신 장애와 같은 불행에 대해 걱정하거나 불

¹⁹⁾ Digest 21.1.1.7 Ulpian; trans. S. P. Scott)

평하는 대신 오직 덕에만 관심을 갖는다(Lagrée 2010: 150). 몸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불행은 악이 아니며 나중에 우리가 그것들을 검사해 보면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Lagrée 2010: 157). 이 관점에 따르면, 소세네카는 그의 서신에서 여러 번 썼듯이, 육체보다 도덕적 미덕이 훨씬 더 중요하다.

“나는 너무 크고 내 몸의 노예가 되기보다 더 큰 것을 위해 태어났어. 내 몸은 내 자가 구속되는 사슬의 일종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행운에게 이 몸을 바칩니다. 행운은 나를 방해할 수 있지만, 그 몸을 통해 어떤 상처도 나를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내 안의 무엇이든지 상처를 입을 수 있어, 그게 내 몸이야. 이 허약한 집에는 자유로운 영혼이 살고 있다. (...) 네 몸을 경멸하는 것은 자유가 확실하다.”(Seneca, *Epistulae Morales* 65.21-2)

건강한 신체는 일반적으로 스토아 철학자가 선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철학자가 갑자기 특정한 신체적 장애에 시달리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한 세네카의 논평은 남아있다.

“병이나 적이 손을 뗐을 때, 사고로 한쪽 눈이나 양쪽 눈을 잃었을 때, 남은 것은 그에게 충분할 것이고, 그의 약하고 훼손된 몸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자신의 몸이 다치지 않은 것처럼 행복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가 놓친 것을 갈망하지 않고 이것들이 없어진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Seneca, *Epistulae Morales* 9.4)

물론 요점은 ‘모든 것이 현자에게 유용하지만, 그나 그녀의 몸을 포함한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다른 스토아 철학자(1세기) 무소니우스 루푸스는 동료 시민의 공격으로 눈을 잃은 스파르타의 전설적인 지도자 리쿠르그스(기원전 6세기)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악행을 용서해야 한다고까지 말한다. 리쿠르그스는 이 젊은이를 포로로 잡아두고 그에게 복수할 기회를 얻었을 때, 그를 잘 대해주었고 좋은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켰다. 결국 그는 이 젊은이를 스파르타로 돌려보냈다.

미덕은 최고의 선이기 때문에, 진정한 스토아 철학자는 장애인을 비웃지 않는다. 그는 삶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공유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비웃을 뿐이다. 이러한 조롱이나 웃음은 우월감을 동반하거나 주장을 펼칠 필요 없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일어나야 한다.

소 세네카에 따르면, 인생은 중요, 시기 또는 경멸을 피하는 것이고, 유일한 목적은 앞서 언급

했듯이 미덕을 달성하는 것이다. 결코 다른 사람을 조롱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대우받고 싶은 대로 동료 인간을 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는 데서 비롯되는 도덕적 비난 외에도, 사람들은 조롱하는 사람이 그가 할 수 있을 때 복수를 할 수 있다는 위험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은 고대 우화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상식이다. 그의 요점을 설명하기 위해, 세네카는 칼리굴라 황제가 그의 힘없는 목소리 때문에 끊임없이 조롱했던 카시우스 채레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채레아는 더 이상 이러한 모욕을 참을 수 없었고, 본질적으로 황제에게 칼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모욕을 당했을 때 당황하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하다. 침착해야 하고 왜 모욕을 당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무소니우스 루푸스는 심지어 모욕으로 피해를 입은 유일한 사람은 모욕 받은 사람이 아니라 모욕자라고 주장한다. 에픽테투스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라고 충고하는 반면, 세네카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한 농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소크라테스를 따라 당신을 비웃을 때 함께 웃는 것이 좋은 생각한다.

모욕을 당했을 때, 누군가가 우리의 언어, 우리의 걸음걸이를 따라 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의 신체나 언어의 어떤 손상이나 행동을 모방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마치 우리가 보여줄 때 보다는 누군가가 따라 할 때 더 잘 알려질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노령, 백발, 그리고 사람들이 성취하고 싶어 하는 다른 것들에 대해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제에서 벗어나면 뻔뻔스러운 사람들과 여러분을 모욕함으로써 웃기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주제를 빼앗긴다. 자기 자신의 웃음을 발견했을 때 아무도 웃음을 주지 않는다.”²⁰⁾

V. 결론

이상으로 고대 로마의 장애인과 장애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회적으로 구성된 장애의 본질을 이해하는 역사적 의미를 인식했으며, 이후 연대기 및 지리적 범위에 걸친 많은 장애 역사가 발생하여 장애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조사했다. 고고학적 증거와 사료들은 로마에 고대 장애인의 존재를 분명히 알려준다.

²⁰⁾ Seneca, De Constantia 17.2

앞서 언급한 역사학자들은 장애인들이 외면당하거나 살해된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로마 사회 내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려고 노력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화에서 기형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과 다르게 취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으로 취급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로마인들은 장애인을 열등한 존재로 여긴 측면도 결코 부정할 수 없다.

이 연구의 결과는 장애사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역사적 소수자인 장애인을 주제로 연구한다는 것이 사료적 한계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 항상 존재해 왔으며 우리는 단순히 수동적인 보살핌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능동적이고 중요한 사회 구성원이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장애 연구의 착수는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이 직면하고 있는 현대의 소외와 차별에 우선적으로 그리고 올바르게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모델과 장애에 대한 후속적인 이해가 담고 있는 가장 강력한 합의 중 하나는 사회가 장애를 교차 문화적으로 이해하고, 인식하고, 대우해 온 역사적으로 가변적인 성격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Borsay(2017)는 장애의 역사를 소개하는 논문에서 지금까지 장애의 역사가 결핍된 이유를 학문으로서 역사학의 맥락에서 찾고 있다. 19세기 말까지만 해서 인문학과 사회과학간의 경계는 오늘 날 보다 훨씬 희미했다. 당시만 해도 사회학자들은 사회 변화 과정에서 토론의 주제가 되는 것의 역사를 다루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분과 학문의 틀이 강해졌고 ‘보편 법칙적’ 접근법과 ‘개별 기술적’ 접근법으로 나뉘었다. 이후 사회학은 보편 법칙적인 방법론을 통해 “특정한 것보다는 보편적인 것”을 찾았고, 개개의 사건들을 통합시켜 인간을 뛰어넘는 구조를 발견하려 애썼다. 반면 역사가들은 개별 기술적인 방법론을 추구했는데 보편적이기 보다는 특수한 것을, 추상적이기 보다는 구체적인 것을, 사회의 구조보다는 행위 주체자를 조사했다. 따라서 역사학적 방법론이 사회과학자들에게 낯선 것이 되어버린 점과 역사학 내부에서도 전문분야 중 에 사회사가 뒤늦게 발전한 점, 그리고 장애인의 차별이 학문적 토론의 장 내에도 영향을 미친 점 등 세 가지를 들어 오늘날 역사학계에서 장애 연구 미진 분야임을 강조했다.

앞으로 고대 장애사에 대한 연구가 더욱 폭넓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안하고 싶은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장애 분류별 차이점에 관해 더 상세하게 연구되길 바란다. 이 논문에서는 장애의 다양한 종류와 그에 따른 차이와 인식들을 충분히 다루지 못해 아쉽다. 이어지는 연구에서는 선천적, 후천적 장애 분류와 그 생활 상에 관해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고대사 내에서의 비교는 어떤 점을 증명하기 위해 더 이른 혹은 더 늦은 자료들과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로마 제국의 변방인 팔레스타인이나 브리타니아와 같은 지역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사료의 양이 많은 편이기에 수도 로마의 상황과 비교하기 유리한 측면이 있다. 비슷한 시기에 다른 지역과 종교 간의 장애인관을 살펴보는 일은 현존하는 사료를 보다 분명히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고고학과 고전학 분야는 장애인을 인간 경험에 대한 연구에 통합하기 위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 실사를 통해 그러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려면 해당 분야에서 이러한 종류의 연구의 중요성을 옹호한다. 연구자들이 이 연구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얻을 수 없다면, 그들은 그것을 더 대중적인 호소력을 가진 다른 주제로 대체해야 하고 따라서 더 큰 관심과 재력을 갖게 될 것이다.

학계의 다양성과 포괄성에 대한 국가적 대화가 증가함에 따라 고전 및 고고학 분야의 장애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역사를 포함하여 다른 많은 소수자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인구의 인식과 권리를 발전에 기여한다. 세계에서 가장 취약하고 광범위한 인구 중 하나인 장애는 일반적으로 기능하는 사람들이 소유하는 교육, 경제, 정치 및 사회적 기회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장벽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또한 다양하고 번영하는 문화를 촉진하는 자신의 기관에 영향력 있는 방식으로 기여한다. 물리적, 사회적, 태도적 환경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무력화시키거나 그들의 참여와 포용을 촉진할 수 있다. 장애는 보편적인 현상이었으며 앞으로는 더 그럴 것이다.

참고문헌

- 차영길. (2010). 고대 로마의 임신과 피임에 대한 이론과 실제. *역사와경계*, 76, 233-58.
- Barnes, Colin, Michael Oliver, Len Barton, Gary L. Albrecht, Carol Thomas, Bill Hughes, Ayesha Vernon, et al. (2017). *장애학의 오늘을 말하다*. 서울: 그린비, 179.
- Abrams, Judith. (2010). This Abled Body: Rethinking Disabilities in Biblical Studies. *JSTOR*.
- Albrecht, Gary L, Ray Fitzpatrick, and Susan C Scrimshaw. (2003). *The Handbook of Social Studies in Health and Medicine*. Sage, Aristotle. Politics.
- Bruce, Vicki, and Andy Young. (1998). In the Eye of the Beholder : The Science of Face Percep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Byrne, Eugene Hugh. (1910). Medicine in the Roman Army. *The Classical Journal* 5, no. 6: 267-72.
- Campbell, Brian, and Lawrence A Tritle. (2013). *The Oxford Handbook of Warfare in the Classical World*. *Oxford University Press*.
- Cicero. On the Laws.
- Czarnetzki, A, N Blin, and CM Pusch. Down's Syndrome in Ancient Europe. (2003). *The Lancet* 362, no. 9388 : 1000.
- Davis, Lennard J. (2016). *The Disability Studies Reader*. *Routledge*.
- Dettwyler, Katherine A. (1991). Can Paleopathology Provide Evidence for "Compassion"? *American Journal of Physical Anthropology* 84, no. 4:375-84.
- Diamandopoulos, AA, KG Rakatsanis, and N Diamantopoulos. (1997). A Neolithic Case of Down Syndrome?. *Journal of the History of the Neurosciences* 6, no. 1 : 86-89.
- Draycott, Jane. (2020). Disabilities and the Disabled in the Roman World: A Social and Cultural History by Christian Laes. *Bulletin of the History of Medicine* 94, no. 1: 135-37.
- . (2015). Reconstructing the Lived Experience of Disability in Antiquity: A Case Study from Roman Egypt. *Greece & Rome* 62, no. 2 : 189-205.

- Emberger, Peter. (2012). Kaiser Claudius Und Der Umgang Mit Behinderten Zur Zeit Des Julisch-Claudischen Kaiserhauses. In *Behinderungen Und Beeinträchtigungen/Disability and Impairment in Antiquity, Studies in Early Medicine 2, Bar International Series 2359*, 75-83, Homer. Iliad.
- Kerényi, Károly. (2016). *The Gods of the Greeks. Pickle Partners Publishing*,
- Kohl, Marvin Ed. (1978). *Infanticide and the Value of Life. Prometheus Books*,
- Krigger, Karen W. (2006). Cerebral Palsy: An Overview. *American family physician* 73, no. 1 : 91-100.
- Laes, Christian. (2014). *Beperkt. Gehandicapten in het Romeinse rijk*.
- Leon, Ernestine F. (1948). The Imbecillitas of the Emperor Claudius. Paper presented at the Transactions and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logical Association,
- Minozzi, S, W Pantano, P Catalano, F Di Gennaro, and Gino Fornaciari. (2015). The Roman Giant : Overgrowth Syndrome in Skeletal Remains from the Imperial Age. *International Journal of Osteoarchaeology* 25, no. 4 : 574-84.
- Murad, Ali. (2010). A Neurological Mystery from History: The Case of Claudius Caesar. *Journal of the History of the Neurosciences* 19, no. 3 : 221-27.
- Nutton, Vivian. (2016). Roman Medicine: Tradition, Confrontation, Assimilation. *De Gruyter*.
- Petersen, Hans-Christian, and Sönke Zankel. (2003). Werner Catel—Ein Protagonist Der Ns-„Kindereuthanasie. Und Seine Nachkriegskarriere/Werner Catel—a Protagonist of the Nazi Programme for" Euthanasia of Children and His Career after World War Ii. *journalname* : 139-73.
- Plato. *The Republic*.
- Pliny. *Natural History*.
- Plutarch. *Agesilaos*.
- . *Lycurgus of Sparta*.

원고접수 : 2021. 11. 15.

수정원고접수 : 2021. 12. 16.

게재확정 : 2021. 12. 20.

Abstract

Discourse on the disabled in ancient Rome

Lee Jin Sil*

This paper is an attempt to examine the disability of ancient Rome and shed new light on its perception. It is intended to answer the prejudice that ancient people with disabilities were perceived only as objects of persecution and discrimination, and to deliver a new perspective differentiated from existing knowledge. In the case of congenital disabilities, there were many abandonments of infants abandoned by their families. As this abandonment of infants is deeply embedded in the ancient image of the public, we look closely at the birth of childbirth and children with disabilities. We will study the perspective of looking at the congenital disorders that ancient Roman society had. Their stories will provide clues for the restoration of the ancient disabled. Through various sources, it was possible to examine the existence and life of disabled survivors in ancient Rome. Archaeological evidence and historical sources clearly inform Rome of the existence of ancient disabled people. They, too, tried to argue that they were playing a role within Roman society. It studies the Roman definition of the body at that time and the gaze toward disease and disabil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study of disability history.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people with disabilities have always existed throughout history and that we have always been active and important members of society, not just passively cared for. Through this paper, I hope to help understand new disabilities by looking at the history of ancient disabilities, which is an insufficient research field.

Keywords : ancient Rome disability view

* Master's course in Western Dictionary, Pusan University